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위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 세대는 성령의 시대이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크리스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 속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6월 7일 (토) 제 148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 맺어야!

## 6월 8일 2014 성령강림주일...의미와 목적 재점검

교회는 성령강림으로 세워졌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뤘다. 신학자 제임스 던(J. Dunn)은 교회를 성령의 은사 공동체라고 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으로 부흥되고 발전했다. 그러나 한편 바람직하지 못한 성령운동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사이비 신앙이나 이단으로 변질된 점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기사나 이적을 행하는 능력으로만 생각하든지 어떤 특정한 사육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성령의 단비가 땅에 내리기를 기원한다. 성령강림주일을 맞으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이 오늘날 한인교회에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기원하며 몇 가지를 다짐해 본다.

부활절후 여섯째 주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 주일이 '성령강림절'이 된다.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었기에 '오순절성령강림주일'이라고도 한다. 이 성령강림주일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온다.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는 성령강림주일이 지나면 그 후부터는 성령강림절기 교회력에서 가장 긴 비축제기간이 된다. 주일이름은 '성령강림후주일'이라고도 하고 '강림절후 혹은 오순절후 주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루터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독일 개신교회는 성령강림주일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주일(Trinitatis)로 지키며 그 후 주일을 '삼위일체후 주일'로 계산하며 이 기간이 교회력의 후반부를 거의 차지하는 가장 긴 비축제기간이다. 성령강림절주일 이후 계속되는 비축제기간에는 물론 성서일과에 따라 설교를 하는 것이 무난하겠지만, 이 절기에는 교회 부흥발전과 성장과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하고 신앙부흥회 전도집회 그리고 각종 선교행사를 계획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또한 이 비축제기간에는 성서일과에 따라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회자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교를 구상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사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임하셨다.  
•성령은 세상 끝 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존 스타트(J. Stott)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준다:  
“우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려 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성령은 오순절에 이미 오셨으며, 결코 그의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주권적 권위



성도는 매일의 삶이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앞에 겸비하고, 그분을 소멸시키지 않기로 결심하며,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들은 많은 젊은 이들이 특별히 찾고 있는 성령의 임재의 표시들, 즉 성경 연구, 사랑의 교제,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지속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복음 전도를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나아가 사회를 정화시켜야 한다.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곳에서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는 화평케 함

에 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다. 이 땅에 질실히 요구되는 것은 화평이다.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 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셋째로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며 우리 모두 온유 겸손한 자들로 변해야 한다. 오만과 강포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때 우리 가정과 사회는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변하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성령 강림주일은 1년에 맞는 1회성 프로그램이나 절기로 끝나서는 안된다.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난해 젊은 세대 침례 전무

## CT, SBC교단보고서, 남침례교단의 성장정체 5가지 주요 원인 밝혀

미국내 주요 교단의 성장 하락세는 2008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부실 대출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면, 미 주류교단의 성장 정체 및 하락세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와 신앙 체험을 요구하는 시대상을 읽지 못한 교단 리더십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같은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의교회'나 '하나님의교회'와 같은 오순절 교단들의 약진이 바로 이와 같은 시대의 부름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내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회(SBC)는 동 교단 내에 "남침례교성장정체위원회"를 곧바로 조직해 교단 내 자구책과 함께 성장이 멈춘 원인들을 분석 연구하여, 해마다 그 결과를 내놓고 있다. '2014년 동 교단 보고서'에 따르면 남침례교회 침례는 올해로 7년째 감소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바로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Five Reasons Why Most Southern Baptist Churches Baptize Almost No Millennials: SBC task force 'owns the problem' and identifies five sources of 'stark patterns of decline' in evangelism).

# 사회에 영적 영향 못미쳐... 목회자의 부정적 롤 모델 진정한 제자훈련과 다음세대 키우기 부재

현재 남침례교단은 거의 1천6백만 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고, 지난 2013년 동안 270개 교회가 개척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105,000명의 교인들과 188,000명의 주일 예배자들이 감소했다. 그리고 동 교단의 상징적인 침례는 0.7%만 성장하는데 그쳐, 거의 한 자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체가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침례교회의 전도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이 실효성이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막강한 교세(?)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교단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통계에 따르면 동 교단내 60% 이상의 교회들에서 배운 침례에는 12-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침례가 전무했다. 게다가 80% 이상의 교회에서도 역시 18-29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침례한 침례가 거의 1년 또는 전무하다고 보도됐다. 결국 25%의 남침례교회들에서 침례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계속되어지는 침례는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 교단내 "남침례교성장정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침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적: 남침례교단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복음을 나누는데 효과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상태로 사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미국사회에 교회들이 영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렬한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3편으로 계속)



2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3면

사역의 핵심은 겸손...배워야 한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3면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  
노봉린 박사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우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로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고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15.5cm × 5.8cm	\$350.00	
	전면 1/4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안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미주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한글 :	
		영문 :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한글 :	영문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시론

사슴나무골 텃밭 이야기(5): 피스메이커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한국처럼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가 바로 중동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과 분쟁의 역사가 곧 히브리 민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갈등과 크고 작은 전쟁들 외에도 지난 오천년 역사가 주위 강대국과의 쫓고 빼앗기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샬롬(Shalom)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사말에서부터 대표적인 지명이나 인명까지도 샬롬이란 표현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이나 솔로몬 왕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육신의 안녕을 넘어 전인격적인 평안(Well-being)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가서 환난이나 전쟁, 질병이나 고난,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러나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동부 워싱턴 DC 근교의 한국전쟁기념관에 가면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국의 젊은이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와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유명한 글귀가 그곳을 찾는 수많은 추모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과 피로써 얻어진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도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얻어진다고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어린 영혼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슬픔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는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에는 그토록 온 국민이 원하는 평화를 되찾고자 애쓰는 사람들과 기회다 싶어서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며 평화를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피스메이커이셨습니다. 남들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으셨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들에게는 다시금 화목케 하는 직책(reconciliation ministry)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으로 오신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화평케 하는 사역자(Peacemaker)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이 첫째요, 이웃과의 수평적 화평이 둘째입니다.

협상이나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정치적 타협이나 타협을 유도해내는 외교적 수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에 의해 합의된 화평은 일시적일 뿐, 결코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피스브레이커로 돌변이 가능합니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탐욕에 의해 이간질하는 자와 참소하는 자로, 분열과 파멸의 도구가 되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참된 피스메이커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 세상의 권력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들의 질서와 화평을 파괴하려고 온 피스브레이커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만이 세상에 오신 목적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주의 종으로써 과연 주님과 같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피스메이커라는 본연의 직책을 포기하고 유기하며 살고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면으로 계속)

#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 리더십저널, 클리프사이드교회의 성장과 자체위협 간 긴장해소방안 소개 (4)

그날 밤 메이슨은 침대에 누워 하얗게 천장만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질문들 때문에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얼른 아침이 와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의 의미가 명확해지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밝은 태양이 떠올라도 여전히 모든 것이 모호하기만 했다. 그래서 하워드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하워드 포사이스는 메이슨이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목사였다. 메이슨이 클리프사이드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두 사람은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 목회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메이슨은 늘 하워드에게 의지해왔다.

몇 번인가 벨이 울리고 하워드가 전화를 받았다. "아, 메이슨. 어떤 일인가?"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피곤하게 들렸다. "목사님, 클리프사이드 장로들이 저더러 사임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전날 밤의 일, 그러니까 주차장과 자동차, 비밀 모임, '사실확인서'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장로들 전부 완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 등을 돌리는 겁니다."

"자네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변화를 강요한 것

전에 의지했을 테고." "맞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이 지지하지 않는 일을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메이슨, 나는 자네를 오랜 세월 알고 지내왔네. 자네는 상황만 허락하면 누구든 설득해서 자기편으로

어붙이면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도 메이슨의 비전을 확실히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았다.

끝으로 하워드가 가장 가혹한 질문을 던졌다. "사임할 생각인가?"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다들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자녀들 결혼도, 부모님들 장례도 제가 집전했죠. 저희 아이들은 그분들을 삼촌처럼 따릅니다. 그런 분들이 저더러 떠나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도 이 교회에 남아 있고 싶은지 확신이 없습니다."

"장로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니 그분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큰 상처가 되겠지. 하지만 교인들을 생각해봐요. 그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자문해봐요. 먼저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나."

메이슨은 전화를 끊고 나서 '사실확인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다시 또 다시, 다섯 번이나 읽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뭐라 말씀 좀 해주세요." 가슴이 저려왔다. 이 엉망진창인 교회를 떠나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



## 부흥됐지만 짧은 기간에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변화 강요 당회 사임요청에 새 운영방침 제시...장로 절반 교회 이탈

하워드는 메이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유감인데, 목회가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약간 있기는 했지만, 결국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팀이 화를 내며 떠나버린 일을 털어놓았다. "팀이 떠나고 나서 모든 일이 원상복귀 됐고 믿었는데, 제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화가 나 있었나 봐요."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 자네 생각에는 교인들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것 같나?" "저를 처음 담임목사로 초빙하면서 교인들이 원한 것은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인수했던 위성 교회와 똑같아요. 교회의 성장은 원하지만 익숙한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자네 말을 들어보면 얼마 전까지는 장로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장로들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뭘까?"

같은데. 물론 바람직한 변화였겠지만, 그런데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적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변화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교인들도 꼭 참고 그냥 목사의 뜻을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메이슨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마지막 문장이 무심코 터져 나왔던 것이다.

"그 말은 자네 진심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네." 하워드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뭔가 새로운 변화를 도입할 때마다 그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켰나?"

메이슨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종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좀 더 세심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교인들이 기존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이해했어야 하고요. 하지만 클리프사이드는 젊은 구도자 중심의 교회라, 교인들을 다독이며 이끌어줄 지혜로운 어른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교회 리더들의 의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지! 그런데 회의에서 누군가로부터 '예'라는 답을 끌어내는 것과 누군가를 자네의 비전에 진심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야."

구구절절 옳은 말이였다. 프랭크는 늘 어긋난 톤처럼 짜증나게 굴었지만, 옳은 말을 할 때도 많았다. 메이슨은 프랭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니와 다른 장로들을 의지해 자기주장을 밀어붙였다. 강하게 밀

신인 사임하면 스페인어 예배도 폐지될 것이다. '그들 중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메이슨은 장로들을 소집했다. 장로들이 회의 탁자에 둘러앉아 있는 동안 메이슨은 그냥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리프사이드에 남겠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교회 운영방침을 정리한 계획서를 배부했다.

(7면으로 계속)

<p><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p>
<p><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 1986 -2014, 28th Anniversary 대학설립 28주년



28 주년 기념, 학위수여식  
Graduation commencement  
June 13, 2014 3:00 PM  
Midwest Summer Festival  
June 13, 2014 7:00 PM



Dr. James Song  
Founder/ President

**ESL**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English Education (TESOL)  
Musice (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  
M.Div

**Doctor Degree Programs**  
Ministry (Counseling, Education, Mission, PT)  
Music (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  
Leadership

**학점 취득과정과 학위취득**

- 1) 직장과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On Line 혹은 집중강의를 통해 학점과 학위 취득가능.
- 2) 미국에 유학하여 (SEVIS I-20 Form 발행)학점취득가능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 On-campus courses - SEVIS I-20(유학가능)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usa@midwest.edu (636) 327-4645, 070-8690-2662

www.midwest.edu

# 사역의 핵심은 겸손...배워야 한다!

## 빌딩브리지오브러브, 효과적인 선교여행 사역방법 소개

단체웃음 입고 기념촬영하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저기서는 손을 서로 맞잡고 통성기도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인원점검하며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등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여름철 공항의 한 단면이다. 선교여행을 떠나는 입장에서는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흥분된 마음으로 인해 이런 모습이 좋

게 보일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시끄럽고 요란스러움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바로 제발 '여행상식과 여행예절'을 지키는 팀이 돼야 한다. 공항에서나 기내에서나 호텔에서나 현지에서나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스스로 삼가 하자.

1. 사역의 핵심은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팀별로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에 선교지에 가서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부푼 기대감 갖고 출발한다. 그러나 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구제물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고, 이제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은 가르치는 자, 돕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자의 역할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무엇이든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가지라.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선교사에게, 현지인에게서 혹은 관찰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심으로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팀 안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풀도록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팀원 간의 갈등을 통해 팀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다.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팀워크를 항상 유지해 나가야 한다.

4. 팀으로 사역하라.

팀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하고,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팀 사역을 하자. 예를 들어, 리더십팀(3인), 서기, 회계, 시간관리, 물품관리, 사진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 팀 사역을 하게 한다.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역자 중심의 수직적인 팀 구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 사역을 하게 되면 동역의 기쁨과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팀원들의 리더십이 성장하게 된다. 사전에 철저

# 선교지 필요 채우는데 초점 · 경건회로 시작 평가회로 마무리 팀사역...말조심, 물질약속 피하고 매일 일지 작성, 안전사고

무엇보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를 배우려고 노력해보라.

첫째는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호텔에서 자기 말고, 현지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 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시장을 가보고 직접 물건도 구입해보라. '왜'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일상을 함께 해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만나라. 문화인류학자들은 참여관찰과 민속학적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배운다. 우리 역시 이러한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 둘째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라. 간

단한 인사말, 숫자를 세는 법에서부터 시작해 적극적으로 언어를 배우 보라. 언어를 배우므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다.

2. 우리의 사역이 아닌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초점을 가지라.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미 세워진 목표와 일정을 함께 연합해 이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하러 왔기에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교여행은 교회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따라서 늘 열린 마음을 갖고 현지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매일 경건회로 시작해 평가회로 마무리하라.

이 말은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팀 경건회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루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는 그 날의 사역과 삶을 평가하는 시간을

하게 준비된 팀만이 효과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함을 명심하라.

마지막으로 사역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경험하거나 들은 것을 기반으로 쉽사리 선교사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선교사 및 현지인들에게 물질과 관련된 약속을 가급적이면 삼가 해야 한다. 셋째, 매일의 일지를 통해 그날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라. 넷째,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것이다.

(1면에서 계속)

△리더십: 많은 목회자들이 과중한 사역들에 지쳐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롤 모델"은 곧바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평신도 중심의 전도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제자훈련: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주일예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세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린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젊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놀라울

정도로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까지는 만들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성공에 대한 기대치: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교회 외관, 교인 숫자, 재정 상

태들만을 목회 성공(?)이라고 간주한다.

결국 2013년 동 교단 침례 현황은 310,368건으로 1.46%가 감소했다(2012년에는 5.5% 감소). 교인 현황 역시 0.9% 감소돼 1천5백7십만 명이, 주일예배 출석율 또한 2.21% 감소돼 5백8십만 명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 소망 칼럼

##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히12:1-3)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써 경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믿음

의 근원이시며 목표이며 대상이시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야 한다.

사람의 지체 가운데 눈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보는 일이다. 그런데 눈의 기능이나 그 섬세함은 과학자들도 놀라고 있다. 눈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육안(肉眼)이다. 이 눈은 빛을 보고 사물을 보는 눈이다. 눈은 사물과 빛을 보고 분별하는 신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지안(智眼)이다. 사람은 지안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학문을 본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행한다. 셋째는 영안(靈眼)이다. 시편 119:18에서 히브리 시인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누가복음 24:13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24:31을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보더니"라고 했다. 영안이 밝아졌을 때 자기들과 함께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페니 크로스비는 맹인이었다. 그러나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신령한 나라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찬송을 작사할 수 있었다. 헬렌 켈러 역시 맹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눈으로 지식의 세계를 보았고 영의 세계를 보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를 바라본다. 주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인 것이다. 출애굽기 24장 29, 30, 35절을 보면 여러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내 얼굴이 주님을 닮게 된다. 부부도 30-35년 날마다 바라보고 살면 닮게 된다. 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참 사는 길이 없다. 그러나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바라보면 참 살고 잘 되고, 흥하고, 구원 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주님을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이 결정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 민6:25-26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축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늘 찬송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들에게 비취고 평강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40:31에 "여호와를 앙망(우러러 바라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솟아나리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할 것이며 아무리 뛰어도 고단치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다.

#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 United Christian Academy 중·고등학교 (6학년~12학년)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고 훌륭하게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겠습니다. -NJUCA 교사 일동-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NJ크리스찬 아카데미 수양관도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로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약을 서둘러 주세요

###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지성(IQ), 감성(EQ), 영성(SQ) 교육
- 혁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명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 2014~2015학년 신입, 편입생 모집 중

- 대상 : 6th ~ 12th
- 인원 : 각 학년별 약간 명
- 전형 :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 2014년 9월 5일
- 특징 : 국제 유학생에게 정식 1-20 발급

문의: (609)954-2900, (609)713-2121(영어)

www.njuca.org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 자녀 교육에 소중한 것

1975년 여름에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제2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이 아직 생존해 계셨던 시절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 두 가지 교훈이 소중하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식탁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의 즐거움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자녀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식사시간은 그냥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밥 흘려 일한 후 먹는 즐거움, 함께 먹는 기쁨, 감사하는 마음, 밥 한 톨도 아끼는 절약정신을 배우는 교육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에게도 식탁은 단지 고평 배를 채우는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은 그곳에서 우리는 효와 예절을 배웠고, 가족을 느꼈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유

대인들에게도 식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먹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집없이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자녀들이 떠나가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족을 회복하려면,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을 회복해보세요. 가족이 식탁에 함께 앉아 먹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깨달고 느끼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교육, 밥상교육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에게 설거지조차 안 시키는 부모들이 대다수이지만, 과거에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노동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꿀을 베고, 염소나 소를 먹고, 동생을 돌보고, 온갖 심부름을 했습니다. 조금 더 크면 우리는 지계를 지고, 땀감을 하고, 어른들을 따라매고 서툰 솜씨로 새끼줄을 꼬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족애를 느꼈고 섬기는 기쁨을 맛보았고 노동이 힘들수록 열매도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노동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며 인격이 성숙해갔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노동을 천대하지만, 밥 흘려 일하는 것은 천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노동은 운동과 매우 비슷합니다. 힘이 들고 땀을 흘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노동을 싫어하고 운동은 좋아할까요? 노동과 운동의 차이가 있다면, 노동은 돈을 받고 하고 운동은 돈을 내고 하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운동은 돈을

쓰면서도 좋아하고 노동은 돈을 받는데도 싫어할까요? 운동은 스스로 좋아서 하기 때문에 기쁘고, 노동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가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면, 간단한 '사고의 전환'만으로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노동을 훈련합니다. 노동의 즐거움을 맛보게 합니다. 일의 열매를 보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섬김을 통해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노동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갖게 합니다. 그의 생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아담에

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7, 19).

이 행방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흙에서 땀 흘려 일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노동을 하면서 우리는 흐르는 땀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씻어 내리며, 신앙과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길을 걷습니다. 감사하며 기쁘게 일합니다. 일하는 기쁨을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 푸/ 른/ 초/ 장

**김광삼 목사**  
(나성제일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린 고아라고 생각한다. 고아는 외롭다. 고아는 배가 고파도 밥을 줄 부모가 없다. 추위도 이불을 덮어 줄 부모가 없다. 고아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의지의 대상이 없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환난 중의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다(약1:27).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여 자신과 똑 같지 않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14:16-18).

이번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골3:9)고 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속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 3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16절)성령을 따라 행(行)하라, (18절)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引導)하시는 바가 되면... (25절)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라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

1.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다.

이 말은 성령이 어떤 기운이나, 바람, 불, 힘, 파워가 아니라는 말이다. 소는 뿔이 있다. 그렇지만 뿔이 소는 아니다. 물론 성령님은 강한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 힘도,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불이 성령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

Morning Holy Spirit"이라는 책이 기억난다. 까를로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인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사람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인격이 있다는 말은 지 정 의가 있다는 말이다. 지적으로 깨닫고,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있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인격이시라는 말이다.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섬실하게 하거나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엡4:30)고 했다. 근심할 수 있는 것도 인격이 있어야 근심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나 혼자서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생각을 언어로 Give & Take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그의 음성도 듣고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말이다. 오래 전에 읽었던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Good

고 한다. 그렇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갈5:22-23).

2.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성령님을 나의 삶의 행동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고, 만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몇 달이고, 몇 년이

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전진과 방향의 기준을 삼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행동기준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다. 한번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서서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행16:6-10). 사도바울은 법사의 결정과 행동을 성

3. 성령님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삼는 것이다.

에덴동산에 선악과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해석과 사탄의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2:17)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은 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3:4)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음성을 동시에 들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두 종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은 생명의 음성, 신령한 음성, 기록한 음성, 나를 살리는 음성이다.

으로 하여금 나의 통치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나를 점유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만일 내가 성령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성령님에게 내가 점유 당하여야 한다. 내가 성령을 조정하거나 부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위험하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성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려는 내 인생의 주인(Lord)이요, 왕이요, 총사령관이 되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성령님께 대하여 불경을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 마치 자신들이 성령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한다. 이것은 오만한 생각이고 방자한 행동이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지배자가 되시도록 해야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과 승리의 삶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결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엡5:18).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마가의 다락방의 무리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행1:14)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 거역은 하나님 거역, 성령 거역이다. 성령강림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는 이런 은혜가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 임하시기를 축원한다.

##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갈라디아서 5:16-26)

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며 살았을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기본 여하에 따라 처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16절)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24절)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행동의 기준을 삼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도 아니하게 되고 지혜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 마음과 합한 성도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탄마귀의 음성으로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하는 음성, 유혹의 소리, 간교하고 달콤한 음성, 속이는 말, 가짜 행복을 꿈꾸게 하는 음성,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성이다. 항상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온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 성령님은 결단코 기록된 말씀과 위배되지 않으신다. 만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사탄마귀의 음성이고, 생각이다. (고전 4:6)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 하나님의 구원계획

신·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 성경 세미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 ①②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약 편, 신약 편
- ③ 칠십이레
- ④ 지금 이시대의 말씀
- ⑤ 하나님의 구원계획 도표
- ⑥ 다니엘
- ⑦⑧ 꼭 읽어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 상하



주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강사: 라흥재 목사      ○장소: 뉴욕 제자들교회 교육관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8:30      ○전화: 718-224-1993, 917-968-1024



라흥재 목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1962. 3-1968. 2 미국 '테네시' 석우회에서 13년간 근무(1972. 5) 미국 휴스턴 신학교(1986. 7)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1992. 6)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1993. 6)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D. Min)(1996. 6) 뉴욕으로 이주, 뉴욕만민제자교회 설립(1996. 9) 뉴욕제자들교회 담임역사(2014.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세미나 인도하는 라흥재 목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이 회개하며 올바른 진리에 눈과 귀를 열 때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심판의 때가 곧 도둑 같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도서 시리즈와 세미나를 통하여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제자들교회 주소 : 39-50 Douglaston. Pkwy., Douglaston NY 11363

구입처 뉴욕제자들교회 또는 각 지역 서점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성경적세계관” 삶에서 실현한다!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휴대용전자기 사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상)

미국소아학회(AAP)와 캐나다 소아학회(CPS)의 발표에 따르면 0세에서 만 2세 사이의 영아들은...

동성 증거, 통제력 상실 등의 문제 일으킨다는 예가 자주 있어 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휴대용 전자기...

Tremblay의 리포트에 의하면, 휴대용 전자기기를 가지고 노는 캐나다 어린이 4명중 하나, 그리고 미국 어린이 3명중 하나는 비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9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중 75%는 성적이 손실을 얻을 만큼 수면부족과 불안정한 심리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그들의 정신...

빠른 뇌 성장시기로 전자기 영향 가장 커
성장지연, 비만, 중독, 정신질환 확률 많아

Kaiser Foundation(2010)과 Active Healthy Koda Canada(2012)가 다시 확인해 준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와 함께 소아치...



2011, Liberatore 2011, Robinson 2008). 또한 Waddell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어린이 여섯 명중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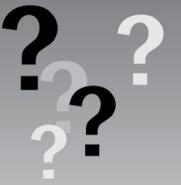
자료에 의하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첨단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성장과 학습 모두에 손실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린이들이 휴대용전자기 사용으로 유행성 비...

다 더 짧게 살게 될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보고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휴대용 전자기기에 전적으로 몰입돼 수면...

지금 사탄은 미국과 세상을 통해 다음세대를 무너뜨리고자 모든 수법(교육, 문화, 정치)을 다 동원해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WCC는 어떻게 생겼고 그 정체성은 무엇이며 현재 한국의 어떤 교단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WCC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말하는데 그 기원은 1910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선교사대회...

WCC는 한국 장로교단 분열의 기폭제

WCC는 처음에 147개 회원 교회들로 출발했으며 현재 8개 권역으로(유럽,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 중동, 남미, 카리브지역, 태평양 지역) 나뉘어 140개국 349개 교단에 속한 5억7천만의 회원들을 두고 있는 초대형 단체입니다.

WCC는 한국 장로교 교단 분열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WCC를 찬성하는 쪽과 51인 신앙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WCC를 반대하는 측의 대립으로 인하여 1959년에 예정합동 측과 예상통합 측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당시 보수신학을 대표했던 죽산 박형룡 박사는 WCC를 “자유주의 광장”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무분별하게 사회 복음을 끌어들이고 경계를 넘어서 타 종교와의 교류를 추구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청교도복음연구회 제 4회 정기세미나

주제 : "청교도와 설교"

급변하는 21세기에도 청교도가 필요한가?

무엇이든 뜯어고치는 것이 갱신일까? 청교도는, 초대교회의 원리에 충실하였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훈을 토대로 개혁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실천적 삶을 실제로 살았던 무리이자 운동입니다.

- 일시: 2014년 6월14일(토) (10:00 AM-4:00 PM)
장소: (1) The Old Dutch Church of Sleepy Hollow (in Territown)
(2) 은혜와 사랑의 교회
대상: 목회자 및 전도사, 신학생
회비: \$20 (교재비) - 차비, 식비: 무료
일정: 10:00 AM 공영주차장(우리은행앞) - 11:00 AM - 예배 및 투어 점심, 이동 - 1:00 PM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세미나 3:00 PM 뉴욕으로 출발 4:00 PM 도착

Table with 2 columns: Topic and Speaker. Topics include Calvin's Theology, Richard Baxter's preaching, and Puritanism.

연락처: 청교도복음연구회 총무 이창중목사
(917) 399-6754, (718) 939-8278, (917) 251-3039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다르와지(DARWAZI)**



20세기 시작될 때까지는 아프가니스탄 땅은 주로 여러 종족들이 연합해 통치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항하는 우두머리들과 외국의 정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려 했으며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독립국가지만 내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70개 이상의 종족들이 살고 있으며, 다르와지족은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1% 미만인 소수다.

다르와지족이 아마다리야(Amu Darya) 강의 다르와지 마을에 산다는 것 외에는 다르와지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아마다리야강은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북부 이웃들인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가르는 국경이 된다. 이 지역의 기후는 온화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당하게 강우가 풍부하다.

다르와지라는 이름이 종족명에 따라 마을명이 붙여진 것인지, 마을명에 따라 종족명이 붙여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르와지족의 언어 역시 다르와지어라고 부르며, 이 언어는 인도-이란 언어군에 속한다.

**삶의 모습**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는 본래 농업과 목축에 기초한다. 산악 지역에는 비옥한 땅이 거의 없는 반면 좋은 목초지가 있다. 그 결과로 다르와지족은 유목적 생활방식을 취해 계절을 따라 가축 떼를 데리고 이동한다.

이 지역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다르와지족도 두 계층으로 나뉠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공들이 만든 나무공예품, 직조, 제철, 도기, 바구니 등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 시장(Bazaar)은 농산품과 기능공들의 물건을 교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전통적인 수공업품들은 널리 보급되었으며 질이 매우 좋고 정교하다.

다르와지 사회의 기본 단위는 농사짓는 땅과 목초지로 둘러싸인 촌락이다. 토지는 가족 중 남자 우두머리의 소유이며, 목초지 사용권리는 그의 아들에게 상속된다. 협력은 혈족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친척들은 위기나 도움이 필요한 때에 서로 서로 돕는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세우되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시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가옥의 크기는 그 가족의 부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을 위한 곳과 가족을 위한 곳,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며, 대부분의 집안 소유물들은 돌담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계층 구별 외에도 성에 따라 노동이 구별된다. 전통적으로 남자

와 여자 모두 식사를 준비하는데 여자들은 빵을 준비하고, 빵은 농사에 대한 책임을 상징한다. 남자들은 낙농의 소산을 제공해야만 하고, 이는 가족을 치는 책임을 상징한다.

**신앙**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이슬람교 소개된 것은 7세기경, 아랍의 침입 때였다. 9세기까지 다르와지족은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오늘날에는 다르와지족의 100%가 수니파 이슬람교도이며, 알려진 기독교인은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프가니스탄의 다수 종족들 간의 관계는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역사적으로 좀 더 강했던 종족들이 약한 종족들을 지배하고자 했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

공했을 때 누리스타니족은 강하게 저항했다. 소련의 침공과 계속되는 내전은 아프가니스탄을 파괴시켰다. 남아있는 사회적 구조는 거의 없으며,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갔다.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사역하는 (비록 다르와지족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는 없으나) 선교단체들이 있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선교단체 관련자들이 철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다르와지족에게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내전이 끝나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르와지족을 섬기고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코란 태우는 목사', 또 반이슬람 집회 예고**

코란 태우는 목사'로 불리는 미국의 테리 존스(62) 목사가 반이슬람 집회를 강행키로 해 이슬람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존스 목사는 자신이 주도하는 '다어본 자유 집회'가 '미국 국기의 날'인 오는 14일 미시간주 디어본 소재 이슬람 사원인 아메리카이슬람센터 앞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집회에는 약 450명의 지지자가 참석, 자전거를 타고 모스크 주변을 돌며 반이슬람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존스는 2011년에도 디어본 사원 앞에서 시위를 하러 다 치안 방해 기도 혐의로 체포돼 무위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교통신서 등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 집회 허가를 받았다.

그는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메리카이슬람센터 앞에 시위대를 이끌고 자주 나타나는 등 디어본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그가 디어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메리카이슬람센터가 미국에서 가장 큰 모스크이고 현지 주민의 약 절반이 중동계란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그는 디어본 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중동계 주민의 눈치를 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불법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1년 전에 발생한 보스턴마라톤 테러 사건의 여파로 이슬람권에 대한 미국 사회의 거부감이 커진 것도 당국을 더욱 긴장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잭 오라일리 디어본 시장은 "존스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지만 미국인답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존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그들의 편견을 홍보하는데 디어본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존스는 "표현의 자유가 행사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샤리아(이슬람교의 법체계)는 서방 사회 및 사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존스는 이번 집회에서 구호만 외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코란 소각 등 공격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코란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2012년 이슬람교의 예언자 모하메드를 비



하하는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슬람권의 공격이 됐다. 이집트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알카에다 등 일부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는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건 상태다.

**브라질 교계, 어린이 성학대 반대 시위**

브라질 교계가 자국의 어린이 성 학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월드컵 기간에 전국적인 시위를 펼친다고 미국 릴리언뉴스서비스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교회연합과 비영리단체들은 월드컵 개막일인 12일 상파울루를 시작으로 모두 12개 도시에서 '볼라 나 헤지(Bola na Rede)' 캠페인을 벌인다. '골대 뒤(Back of the Net)'란 뜻으로 모두가 축구에 관심을 쏟을 때 어두운 이면을 살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신교회 240여 곳이 참여한다. 이들은 경기장 인근과 거리에서 어린이 성 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주고 성 학대 희생자를 위한 기도도 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아동 성 학대가 만연돼 있다. 유네스코 조사결과 매년 어린이가 25만여 명이 성적 학대를 당한다. '볼라 나 헤지'의 로널드 넬톤 유니티드월드미션 선교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도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단 크리스천 임신부, 결국 감옥서 출산**

이슬람 배교 혐의로 임신한 채 수감된 수단의 크리스천 여성이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다. 영국 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 국제사회가 최근 사형선고를 받은 이 여성의 석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무위에 그친 것이다.



메리엄 이브라힘(27)은 이날 오전 수단 카르툼의 한 감옥에서 둘째 딸 마야를 낳았다. 이브라힘은 지난 2월부터 생후 20개월 된 아들

과 함께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수단법원은 지난 15일 이브라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변호사 엘사 리프는 "이브라힘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열악한 부속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게 했다"며 "아직 면허가 허락되지 않아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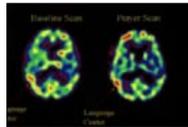
영국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는 "남편과 변호인이 산모를 만나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산모와 아이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단정부에 지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이브라힘은 2012년 수단에서 의사로 일하는 미국인인 다니엘 와니를 만나 결혼했다. 어릴 적 이슬람교도인 아버지와 오빠들과 헤어진 이브라힘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오빠들은 성인이 된 이브라힘을 찾아와 이슬람 배교 혐의로 고소했다. 수단은 이슬람법 샤리아에 따라 타 종교로 개종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수단법원의 사형 선고 이후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는 수단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미국 하원의원과 남침례회 등 미국 정·교계는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미국법과정의센터는 석방 촉구 온라인 서명을 벌여 현재까지 수십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미 박사, 뇌건강에 기도 효과증명**

미국의 한 신경과학박사가 기도나 명상이 뇌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 지역 방송 WLTX19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 앤드류 뉴버그 연구소장은 기억력 장애를 겪는 노인에게 하루 12분씩 8주 동안 명상 연습을 시킨 뒤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했다니 실험 전과 후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적 변화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는 기도나 명상과 같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기도는 운동을 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뉴버그 소장은 "종교나 영적 수행을 할 때 뇌의 기능이 더 활발히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도록 뇌가 설계됐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WLTX19는 노숙인 생활을 접고 가수를 준비하는 흑인 청년 빌리 도시와 유명 목회자인 조엘 오스틴 레이

크우드교회 목사의 기도 간증을 소개하기도 했다. 도시는 "2011년 거리에서 죽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며 "기도하면서 분노나 두려움을 떨쳐버렸다"고 고백했다. 오스틴 목사는 "과학적으로 꼭 짚어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도를 하면서 평안은 물론 자신감, 강한 기운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기독교인인 뉴버그 소장은 2012년에도 기도의 힘을 증명한 적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의 뇌를 MRI 촬영했다니 전두엽과 같은 언어 담당 뇌 영역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뉴버그 박사는 "기도할 때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뇌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스라엘 인증샷 논란**

미국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예루살렘 성지 '통곡의 벽'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렸다고 미 인터넷매체 블레이크이즈닷컴이 28일 보도했다.

팀버레이크는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Western Wall)' 앞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사진공유사이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는 이스라엘 최대도시 텔아비브 공인차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다. 팀버레이크는 "나는 성지를 경험했습니다. 이 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는 소감도 덧붙였다. 20만 명 이상이 이 인증 사진에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가 맨 마지막에 남긴 해시태그 '#이스라엘(#Israel)'에 엉뚱한 불뚝이 튀었다. 해시태그는 SNS에서 주제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네티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쪽으로 나뉘어 팀버레이크가 서 있는 곳이 서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팬들은 "당신에게 그곳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그곳은 영원한 팔레스타인 땅" 등 반대 의견을 남겼다. 반면 이스라엘 팬들은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통곡의 벽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것이다" 등의 지지 의견 남겼다.

'서쪽 성벽'은 '통곡의 벽(Wailing Wall)'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곳이다.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통곡의 벽'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 땅이 됐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Design(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변경될수도있을니바\*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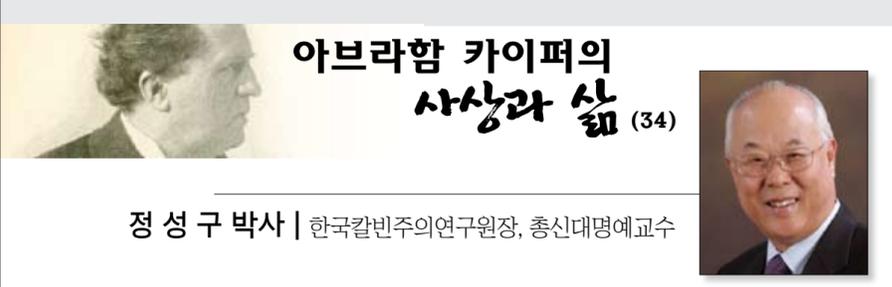
**Phnom Penh, Cambodia**  
• Oct 27-31(10월 27일-31일)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 8주간 온라인 강의 )**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4)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다양한 저술가 카이퍼 : 카이퍼의 박사 학위 논문집

카이퍼 박사는 위대한 저술가였다. 그는 50여 년 동안 한 번도 붓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책을 썼다. 그가 쓴 크고 작은 책들을 합하면 233권이고, 이는 작은 도서관이 되리만큼 많은 책을 썼다. 카이퍼의 책 중에는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책도 있지만 정치, 사상, 성경연구, 명상록, 설교, 연설집, 역사 전기 등 실로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책들은 그때그때 마다 역사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소책자로 출판했고 줄기차게 쏟아낸 De Heraut지에 쓴 성구 명상록, 에세이 그리고 De Standaard지에 실린 무게 있는 논설 등이 있었다. 이런 글들은 소책자로 출판되었다

가 다시 큰 책자로 편집되어 나온 했다. 카이퍼는 위대한 설교가 동안 판을 거듭했다. 심지어 어떤 책들은 출판되기도 전에 예약 주문으로 다 팔린 경우도 있었다. 필자는 카이퍼의 책 233권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필요한 몇 권을 소개해 볼까 한다. 저술가로서 카이퍼와 그의 저술에 관한 것을 말할 때, 룰만(J.C. Rullmann)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카이퍼의 모든 책들을 수집정리하고 그 배경과 의미를 부여하고 화란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카이퍼 박사의 저술에 대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룰만은 전3권의 방대한 저작을 통해서 카이퍼 박사의 서책을 정리하고 당대인들의 평가와 인용, 논평, 발췌를 하는 등 말하자면 서평(Book Review)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카이퍼의 책이 영구판으로 출판된 것 말고도 신문과 잡지에 실려진 작은 논설까지도 이 책에서 볼 수 있고 카이퍼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카이퍼 박사는 주로 화란어로만 글을 썼다. 그 책 중에 불과 몇 권만이 영어로 번역되었으므로 영역된 책들의 가치는 대단하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잡지들에서도 카이퍼의 글들이 영문으로 번역되

고 했다. 카이퍼는 그의 나이 23세 때 흐로닝겐 대학이 주최하는 학생논문 모집에 응해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었다. 그때 카이퍼는 폴란드의 종교개혁자 존 라스코를 연구해서 학계에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일찍이 칼빈이 23세 때 "세네카의 관용론"이란 논문을 써서 학계에 크게 주목을 받은 것과 비교 할만하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62년 카이퍼는 라이덴 대학으로부터 "요한 칼빈과 요한 라스코의 교회관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연구"(Disquisitio historico-theologica, exhibens Johannis

Calvini et Johannis a Lasco de Ecclesia Sententiarum inter Se Compositionem...)로 신학박사(Dr. Theol)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즉각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이는 2년 전 흐로닝겐 대학에서의 논문

을 확대하고 새로 고쳐 썼다. 이 논문 때문에 카이퍼는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 심취했고 종교개혁사 특히 교회사와 교의신학을 주로 전공을 한 셈이다.

그러나 카이퍼는 이런 칼빈의 사상을 더욱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널리 증거 하게 되었고, 참된 개혁교회 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개혁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물론 그의 박사학위 지도는 스킨(Schoten) 교수였다. 하지만 19세기의 카이퍼가 칼빈 연구를 통해서 16세기의 칼빈을 멘토로 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책 중에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영 곧 성령이라 했다. 그리고 성령은 한 인격(De Heilige Geest is en Person)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866년에 라스코의 전집이 출판되었을 때 29세의 젊은 학자인 카이퍼는 "라스코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논제로 121페이지의 라틴어 서문을 썼다. 이 말의 의미는 당대에 칼빈과 라스코에 관한 최고 최대의 학자라는 평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 23세 때 폴란드 종교개혁자 존 라스코 연구로 학계 큰 주목 칼빈 사상 확대 재생산함으로 칼빈주의적 세계관 널리 증거

요 청중들을 움직이는 명 연설가였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글을 써서 민중을 교육하면서 잡지는 교회를 깨우고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다. 이런 책들은 한번 출판된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다 팔린 경우도 있었다. 필자는 카이퍼의 책 233권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필요한 몇 권을 소개해 볼까 한다. 저술가로서 카이퍼와 그의 저술에 관한 것을 말할 때, 룰만(J.C. Rullmann)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카이퍼의 모든 책들을 수집정리하고 그 배경과 의미를 부여하고 화란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카이퍼 박사의 저술에 대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룰만은 전3권의 방대한 저작을 통해서 카이퍼 박사의 서책을 정리하고 당대인들의 평가와 인용, 논평, 발췌를 하는 등 말하자면 서평(Book Review)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카이퍼의 책이 영구판으로 출판된 것 말고도 신문과 잡지에 실려진 작은 논설까지도 이 책에서 볼 수 있고 카이퍼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카이퍼 박사는 주로 화란어로만 글을 썼다. 그 책 중에 불과 몇 권만이 영어로 번역되었으므로 영역된 책들의 가치는 대단하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잡지들에서도 카이퍼의 글들이 영문으로 번역되

고 했다. 카이퍼는 그의 나이 23세 때 흐로닝겐 대학이 주최하는 학생논문 모집에 응해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었다. 그때 카이퍼는 폴란드의 종교개혁자 존 라스코를 연구해서 학계에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일찍이 칼빈이 23세 때 "세네카의 관용론"이란 논문을 써서 학계에 크게 주목을 받은 것과 비교 할만하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62년 카이퍼는 라이덴 대학으로부터 "요한 칼빈과 요한 라스코의 교회관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연구"(Disquisitio historico-theologica, exhibens Johannis

### 가정사역 칼럼



## 진정한 사랑은 인내와 노력하는 것...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예로부터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정말 일심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오랜기간을 함께 생활하다보면 예 '서로 마음이 같아 지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결혼한 햇수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서로가 온전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다. 결혼만 하면 두 사람은 저절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마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진 상호보완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의 특징은 경쟁적이고 일 중심, 목표 지향적이어서, 남편이 된 후에도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기를 쉽게 기대해선 안된다.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적인 여성들이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하는 것

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처음엔 콩깍지가 낀 것처럼 상대방의 모든 것이 그렇게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콩깍지가 벗어지고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 상대방의 모든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게 느껴지게 된다.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기술 혹은 예술(Love is art!)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대상

이지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 한국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부부끼리나 부모자녀와의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남성들과 여성들의 필요와 욕구가 다를 수 이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남성(남편이나 아들 포함)들은 문제해결의 필요 때문에 대화를 필요로 하고 대화방식은 6차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반면, 대부분의 여성(아내나 딸 포함)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자 대화를 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에 서로의 대화코드가 달라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 힘들어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위

해서는 실제적인 상담이나 훈련이 필요한 만큼, 지면에서 다루기는 한계가 있지만 간략하게 언급한다면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는 잘 들어주는 것이고 둘째는 잘 표현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남성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만큼 여성들과의 대화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끔 예외적인 남성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릴 때 어머니나 누나들 틈에서 자라면서 그들과 꾸준히 대화를 해온 덕분인 경우이다. 잘 듣는 방법은 반영적 경청법, 혹은 앵무새대화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끝에 "~구나"(혹은 "~군요")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물론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감정부분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소원 등을 잘 표현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끼리나 자녀

들과 이렇게 말하기놀이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또한 올바른 목표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분명 창조주의 뜻이요 우리들의 사명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연합,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건강한 한 사람과 또다른 건강한 한 사람이 만날 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홀로 서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집의 가훈" 만들거나, 우리 집의 사명선언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2면에서 계속)

일부 프로젝트는 추진속도를 조절하고 일부 프로젝트는 완전히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의 계획은 무엇보다도 교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장로님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클리프사이드 교인들은 더 이상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

니다. 지금도 버거운데 담임목사까지 바뀌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면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신속히 교회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장로들은 메이슨이 건넌 계획서를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프랭크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대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목

사님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메이슨의 계획서를 휴지통에 던져 넣고는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다른 장로 세 명도 대니의 뒤를 따랐다. 메이슨은 고개를 숙이고 두 눈을 감았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텼다.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당신 뜻인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들 도움 없이는 목회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때 프랭크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 목사님이 추진하신 계획에 전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계획은 확실해보이네요.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메이슨이 눈을 떠보니, 프랭크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

이고 있는 다섯 명의 장로들이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메이슨은 생각했다. "당신들은 또 얼마 후에 저 문을 걸어 나가게 될까요?" 그날 회의실을 나갔던 네 명의 장로들은 교회를 조용히 떠나지 않았다. 추하고 고통스러운 이별이었다. 메이슨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는 바

닥을 쳤다. 교인들은 때를 지어 교회를 떠났다. 메이슨의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아내는 비난을 받았다. 마치 교회와 이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소란이 가라앉았을 때 교회에는 교인 400명이 남아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4년 6월 24일(화, 저녁) ~ 7월 8일(화, 저녁)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장소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 382-1450 www.galmelsan.or.kr

# 나성 동산교회 부흥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

날짜 2014년 6월 26일(목, 저녁) ~ 29일(주일, 오전 11:00)

시간 저녁 7:30, 새벽 5:30

장소 나성 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문의 (213) 487-3920





### 목회서신

## ‘기다림’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음식도 빠르게 먹고 걸음도 빠른 저에게 '기다림'은 보편적으로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우체국이나 비행기 탑승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그나마 끝이 보이니 어떻게 견디겠는데 병원에서 기다리는 일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예약자 칸에 이름과 예약시간을 적은 후부터는 차례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대기실에 비치된 신문이나 매거진(magazine)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를 코끝에 닿는 것을 느끼고 짝짝 짝짝대는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때, 목사체면에 걸어서는 잠잠과 교양있게 웃지만 속으로는 "기다라다 지쳐서 병나겠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하고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는 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이 방면에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이런 성향이 더 심하지만 이웃 미국인들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빨리"를 외칠 때 미국인들은 "컴온, 컴온"(Come on, come on)을 외칩니다. 우리가 3분 컷라면을 기다리지 못할 때 미국인들은 30초 인스턴트 밥(Minute Rice)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마이크로웨이브에 커피를 데우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건 10개만 통과할 수 있는 마켓 익스프레스 레인(express lane)에서 11개의 물건을 통과하는 사람을 보면 흥분하며, 또한 한국 총알택시기사 못지않게 초스피드로 운전하는 난폭한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컴온, 컴

온" 외치는 미국인과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 민족의 조급증은 종종 그 사회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초조함과 조급함이 기다림의 적이라면 설렘과 기대감은 기다림의 친구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어렵지만 기다림에 이유가 있고 상급(reward)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기다림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과 더 좋은 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속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스탠퍼드대학에서 600명의 네 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준 하나의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또 한 개의 마시멜로를 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4년 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점검해보니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상으로 얻기 위해 인내했던 3분의 2정도의 아이들은 나머지 아이들보다 더욱 성공

하고 인정받는 청소년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마시멜로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기다림'을 가능하게 했고, 이 기다림을 통하여, 목 적성취를 위해서 현재의 유혹을 이기고 인내하는 것을 배운 아이들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렘과 기대감도 기다림의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목적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여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게 되어 '기다림'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이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바뀌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림'은 원망과 쓴 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의 동기가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신뢰'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요셉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감옥에서도 24개월, 104주, 730일, 그리고 17,520시간을 원망이나 불평

로 낭비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21일 동안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포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그 결과로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 가운데 때론 희망에 부풀었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상황에 근거한 설레이나 기대감, 혹은 초조함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불변하시고 우리를 독생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다림이 승리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CRC 한인교회협 신임회장 박건섭 목사

### 제31차 정기총회, 부회장에 임바울 목사 선출

북미주개혁교회 한인교회협의회(The Korean Council of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이하 CRC, 회장 김기웅 목사) 제31차 정기총회가 6월 2일부터 5일까지 오펜카운티 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박건섭 목사(예은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제31차 CRC한인교회협의회 첫날 개회예배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 원안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건섭 목사

박건섭 회장은 "CRC 교단내 한인교회 수가 100개가 넘었다. 한인들 힘에 쫓기고 한인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 한인총회를 통해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미국의 특수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힘쓰겠다. 총회 안에 교

회끼리 친교하며 선교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일 오후 7시에 열린 개회예배

는 부회장 박건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남동우 부회장이 기도, 김기웅 회장이 "하나님의 사랑"(왕상 13: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증경회장 변창국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했으며 증경회장 박영주 목사가 축도했다.

둘째날에 열린 회의는 회순채택, 새 회원 및 외부인사 소개, 환영사, 각 지역보고, 전 회의록 낭독 및 서기보고, 회계보고, 각 위원회 보고, 신규임원교체, 안건토의 등을 다루었으며 차기총회 장소는 추후 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새 임원 명단이다.  
△회장: 박건섭 목사 △부회장: 임바울 목사 △총무: 전지능 목사 △서기: 박성재 목사 △부서기: 정오석 목사 △회계: 남동우 목사 △부회계: 배현석 목사.  
(박준호 기자)



G2G와 코디아가 주최한 북미주한인 청소년교재 'Living Between' 출판 기념회에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G2G-코디아 교재출판 기념회

### G2G교육연구소 & 북미주한인교육연구소 공동

G2G(대표 이학준 목사)-코디아(대표 노승환 목사) 교재 출판 기념회가 6월 2일 오전 10시 파사데나 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정영진 목사(풀러신학교 예배학박사과정) 사회로 시작된 출판기념회는 노승환 목사(밀알교회 담임)가 인사말을, 최예나 자매(풀러신학교)가 첼로 특별연주를 했으며,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대표)와 이정근 목사(풀러신학교 한인목회학박사과정 논문지도 교수)가 논찬을,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 신학/윤리학 교수)가 교재 소개를 했다.

이학준 교수는 "2007년에 세워진 G2G와 코디아는 이민교회의 공동적으로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엔 제작한 교재역시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발간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이 교수는 "교재출판에 있어서 첫째 미국과 캐나다, 둘째는 세대를 뛰어넘어 겪는 이민교회 문제를 어떻게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는지, 셋째

신학자와 목회자가 함께 모여 오늘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등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세대와 세대 사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과 신학자와 목회자 사이 등 네트워크"이라 언급하며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문제는 가정의 붕괴, 영성을 쫓아가지만 종교는 싫어하는 시대, 증가하는 자살률 등 혼란의 시기에서 자녀들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교육하지 않으면 자녀교육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출판된 교재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지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 대학부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교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민교회가 기도와 후원을 통해 이 작업이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재실습시간을 가졌으며 점심시간 후에는 교육세미나가 이 학준 교수를 강사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 그레이스신학교 D.Miss→D.Ics로 변경

인디애나 주에 소재한 그레이스신학교(총장 윌리엄 카티프 박사)가 운영 중인 선교학박사(Doctor of Missiology 이하 D.Miss.) 프로그램이 문화교류학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이하 D.Ics) 프로그램으로 학위변경 됐다.  
본교는 6월 뉴스레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학위변경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선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18-9세기 동안에 서구 열강으로부터 혹독한 식민지 경험을 한 제 2, 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선교'라는 단어는 '식민지 정책의 침범으로서 선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나라에서는 '선교사'나 '선교'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심지어

는 '선교'라는 단어조차 언급할 수 없는 아랍권,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D. Miss 학위소지자가 활동하는데 제약이 받게 되기에 D. Miss에서 D.Ics로 학위명칭 변경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공식적인 학위명칭 변경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2015년도 학위 수여자부터 새로운 학위인 D.Ics 학위를 받게 된다. 현재 ATS에 가입된 학교 중 D.Ic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는 오레곤 주에 위치한 웨스턴신학교와 그레이스신학교가 있다.  
(박준호 기자)

## 신천지 이만희 집회성향 불구... 남가주교계 이단집회 대처 시급

신천지 이만희 교주 집회가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 칼슨에 위치한 칼슨커뮤니티센터에서 'Bring Back Our Peace Now'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가주교계를 비롯한 한인교계와 교회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한인교계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천지측은 집회일인 22일 오후 5시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임국장자인 탑브레들리 공항에서는 교주를 환영하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칼슨커뮤니티센터 집회 후에는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구 수정교회에서 열린 이만희 집회 연합 반대 시위 때의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인 것으로, 지역 한인교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영적리더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게 됐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을 비롯해 12개 교계단체는 지난 2012년 1월 17일 신천지 등 이단들의 활동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같은 달 24일에 상호업무협정(MOU)을 체결한 바 있다.  
(11면으로 계속)



이재근 목사의 출판기념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많은 어려움 불구 하나님 은혜로 발간” 이재근 목사 “가정선교...” 출판기념 감사예배

이재근 목사가 최근 발간한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5월 22일 주사랑신학교 교육관에서 열렸다. 저자 이재근 목사는 " 그동안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볼 때 책을 발간하리라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책을 발간하고 뒤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다.

석종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홍식 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에반젤리아(복음)대학교 총장 신현국 박사가 말씀을 전했다. 신 총장은 "기독교의 변질에 위기 현상에서 이재근 목사가 저술한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기독교 현상에 가장 적절한 교과서, 가정의 필독서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가정의 시작과 주관하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주권사상에 철저할 뿐 아니라 가

정선교(Family Mission)에 적용하는 용어 하나하나도 자기의 논리와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귀한 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명 박사는 "가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조직보다 제일 중요한 기관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지상에 최초로 친히 몸소 만드신 기관이므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이재근 목사가 가정과 관련된 귀한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이재근 목사의 감사말에 이어 미주총신대학교 음악과장 바리톤 장상근 교수가 '축복하노라'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른 후, LA 세리프 시니어 체플린 이병희 목사가 축도함으로 마쳤다.  
저자 이재근 목사는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외교학과와 Vision Christian College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후,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가정사역 전공으로 Ph.D학위를 받았다.  
(정려: 박준호 기자)

## 월드미션프론티어 단기선교단 모집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욱 선교사)가 2014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을 모집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역하는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은 우간다, 르완다, 콩고, 부룬디, 탄자니아 5개국에서 전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 쯏소와 돼지 나누기를 통해 전도한 마을이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돕는 사역도 추진한다. 단기선교단원들은 각자가 교회를 통해 사역하는 아프리카를 마련해 현지에서 직접 전달하게 된다. 한편 단기선교단은 오는 8월 2일 탄자니아 무안자에서 여행되

게적으로 유명한 새리케티 국립공원이 가까워 사파리 관광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994년 르완다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월드미션프론티어는 매년 여름 대규모 단기선교 단원을 모집해 아프리카 5개국 복음화 대회를 추진했으며, 그동안

## 아프리카 5개국, 7월 1일-8월 3일 전도중심...8월2일 병원진수식 참여

5-6명으로 조직되는 단기선교단은 4개의 팀으로 나눠 1팀은 우간다-탄자니아에서(7월 1일부터 13일, 7월14일부터 8월3일까지), 2팀은 르완다-탄자니아(7월 1일부터 13일,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3팀은 콩고-부룬디-탄자니아(7월 1일부터 13일, 7월 14일부터 20일, 7월 21부터 8월3일), 4팀은 탄자니아 매디컬(7월 1일부터 13일, 7월 15일부터 8월 3일)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단기선교단은 사랑의 가족나눔기 사업으로 사랑

은 빅토리아 호수 병원진 진수식에 참가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는 빅토리아 호수의 1천개의 섬을 대상으로 의료사역을 위해 의료선박을 제작 중에 있는데 오는 8월 2일 진수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진수식에는 탄자니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지도자(150명), 탄자니아 교계지도자(80명), 월드미션 프론티어 5개국 스텝(50명), 한국인 성도(100명), 언론인(20명) 등 400명 이상의 내빈이 초청된다. 탄자니아 무안자는 세

1,200명의 단기 선교단원이 동원돼 아프리카 현지에서 150만 명이 참가하는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선교단의 모집은 6월 말까지이며 항공료(2천7백달러), 현지 사역비(1천 달러), 비자(2백 달러) 등의 경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은 전화(408)345-172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미션프론티어)

동부교계 게시판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리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7월 17일(목) 오후 3시30분부터 19일(토) 오후 6시30분까지 뉴저지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다.

문의: (201)242-4422, 696-8044



뉴욕목사회 세미나에서 라홍채 목사가 도표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요한계시록

뉴욕목사회, 감사 라홍채 목사초청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가 주최한 라홍채 목사초청 “하나님의 구원계획: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지난 30일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의 목사)에서 열렸다.

황동의 목사는 강사를 소개하며 “라홍채 목사님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며 “목사회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홍채 목사는 “지질학을 전공했던 진화론자가 하나님을 만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 뉴욕에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질학에서 필요했던 도표그리기를 활용, 도표그림으로 계시록을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라 목사는 지난 4월 전국 가는 지도를 완성했다며 “가서 예언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인데 예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요즘 목사들이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 목사는 “계시록의 비밀은 주의 종과 교회

를 통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며,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창세기와 연경에 설명했다.

라 목사는 “이 시대는 진리가 왜곡돼 교인들을 현혹시킨다”며 “사탄의 계획은 계시록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이단들이 계시록을 들고 나온다. 계시록은 축복의 장으로 핵심은 주님 오실 때 갖춰야 할 것, 즉 첫사람을 유지하고 그 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며 둘째사람(불못)에도 들어가지 않는 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의 일곱 교회, 즉 예베소교회/사도시대, 서머나교회/순교시대, 버가모교회/국교시대, 두아디라교회/암흑시대, 사대교회/개혁시대, 빌라델비아교회/선교시대, 라오디게아교회/종말시대를 비롯, 오후시산에는 일곱째 인과 네 나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가 주최한 라홍채 목사초청 “하나님의 구원계획: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지난 30일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의 목사)에서 열렸다.

“말씀과 기도 전념, 깨끗하게 살라”

동부개혁장신 제 25회 졸업식, 18명 졸업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 제 25회 졸업식이 지난 2일 저녁 킨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본당에서 열려 캐나다분교(6명)를 포함 총 18명이 졸업했다.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은 부이사장 전덕영 박사의 인도로 기도 허경화 장로(이사), 성경봉독 장영일 목사(캐나다교무처장), 찬양 글로리아선교중앙단, 말씀선포 정관일 박사(KAPC 총회장), 학사보고 문경환 박사(학감), 학위수여 및 시상, 훈시 전덕영 박사, 격려사 김선만 목사(

이사), 축사 김성국 박사, 축하 강혜영 집사, 답사 박수진 졸업생대표, 기념품 증정, 은퇴기념패 증정(윤성태 실천처장), 광고 김해천 목사(총무처장), 축도 강기봉 목사(학생처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관일 목사(캐나다 가든교회 담임)는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권면”(딤후4:7-8, 13-14, 딤후2:19-22)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신학교 졸업은 개인영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며, 바울의 권면을 들



할렐루야대회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뉴욕교회 할렐루야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회(회장 김승희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3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2일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희복 목사 인도로 기도 황영진 목사, 성경봉독 이수원 장로, 설교 이풍삼 목사, 특별통성기도 김영철 목사(미국과 조국을 위해) 양민석 목사(뉴욕동포사회와 복음화와 교회를 위해) 권근주 목사(할렐루야 2014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광고 송일권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풍삼 목사는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시131: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는 주님이 이것이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크건 작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를

살리는 지름길은 먼저 목회자가 살아야 한다”며, “목회자가 살려면 본말달림처럼 ‘젓 텐 아이처럼 엄마 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젓 텐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은 배가 고파서 아니라 엄마 품이 좋아서 인 것처럼 목회자는 오직 주님 품이 좋아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목회자가 평온하게 신앙 생활해야 성도들도 잘 할 수 있다. 목회자들부터 은혜 받고 참석하는 할렐루야대회 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할렐루야2014 대뉴욕복음화대회는 6월 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저녁 8시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같은 시간, 옆 장소에서 어린이복음화대회가 열리며, 청소년 복음화대회는 9월 5일(금)과 6일(토) 뉴욕장로교회(담임 이승환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회, 뉴욕장로연합회 초청 오찬

뉴욕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지난 29일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를 초청했다. 오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재덕 목사 사회로 김명신 장로의 대표기도 후 김승희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본문으로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2부 오찬 순서는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랍스터 특별 요리로 즐거운 식탁이 마련됐다. 양 단체는 이런 교류 활성화를 통해 친선과 화합, 협력 관계가 이뤄져 뉴욕교회에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왼쪽 사진).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첫째 말씀준비에 최선을 다하라 둘째, 기도에 전념하라 셋째, 깨끗하게 살라”고 역설했다. 또 잔리사에 치명적 파고 되는 성적 범주에 대해 강조하며 능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면 기도하고 겸손히 행하라고 말했다.

학장 장영준 박사 대신 훈시에 나선 전덕영 부이사장은 “장학자들이 늘 해오신 훈시 디모데후서 2장15절을 인용한다”며,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라. ‘분별’은 길을 똑바로 내는 것으로 바른 길을 내라”고 말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사역자가 되라”고 훈시했다.

김선만 목사는 “말씀을 불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격려했다. 김성국 박사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성경적 보수신학과 귀한 성품을 지닌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라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 김경민, 김은식, 김웅원, 김경민, 김재상, 박수진, 서옥석, 소유영, 임은아 △스기독교교육학석사: 신주희 △선교학석사: 김명자, 김필현, 이순옥, 황해옥 △영교역학: 김해경, 정경숙 △신학사: 고엘림, 조예진.

동 신학교는 1987년 개교해 25회 졸업식을 진행하는 동안 총 4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중 목회학석사는 203명이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졸업식을 마치고 교수와 졸업생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가 주최한 김인환 총장초청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김인환 총장.

“칼빈주의의 현대 목회 적용” 주제로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김인환 총장초청 세미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지희 목사)가 주최한 김인환 박사 초청 세미나가 지난 2일 일 새사람교회(담임 이종일 목사)에서 열렸다. 감사 김인환 총장(전 총신대학장, 현 대신대학교총장)은 “칼빈주의의 현대 목회 적용”(롬11:36-12:2)이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했다.

교회정치, 칼빈주의의 예배와 삶”에 대해 집중 강의했다. 김 총장은 “한국 장로교단 목회자들의 실제 목회에서 칼빈주의가 실종된 듯하다”며,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고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도자들이 헛된 물질적 욕심과 교권의 야망을 버리고 목회를 방자해 자신의 인간적 야심을 달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체제성인 칼빈주의/개혁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며 발전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다스리는 참된 교회와 교단, 성령이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삶이 구현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유원정 기자)

김인환 박사는 ““칼빈주의를 우리는 개혁주의라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과 개혁신학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강하고 일종의 정서운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용어설명부터 시작해, “칼빈주의 신학의 정체성과 목회, 칼빈주의의 구원론과 전도/선교, 칼빈주의의 교회론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미나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앙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포장교회, 리빙스톤교회, 롱이일랜더스성결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브라질 서울교회, 브라질 한인교회,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뉴욕갯세미나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앙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포장교회, 리빙스톤교회, 롱이일랜더스성결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투인간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남가주 지역 여름성경학교 일제히 시작

## 6월11일 글로발선교교회-7월24일 코너스톤교회

날짜	교회	문의	비고
6/11-14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목사)	(626)201-3362 (323)440-4541	
6/16-20	남가주사랑의교회(노정수 목사) 동양선교교회(박형은 목사)	(562)455-6211 (213)210-3741	VBS캠프 6/30-7/2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 오렌지한인교회(김윤진 목사)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626)810-3455 (714)871-8320 (818)834-7000 (213)327-8112	
6/18-21	충현선교교회(민종기 목사)	(818)549-9191	
6/19-21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	(626)965-3443	
6/20-23	삼성장로교회(신원규 목사)	(562)690-9800	
6/22-24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	(626)744-9191	
6/24-27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 에브리데이교회(최흥주 목사)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714)521-0991 (818)832-6628 (213)309-9323 (213)703-7173	유치원-5학년(28일까지) 2-4세

날짜	교회	문의	비고
6/24-28	OC제일장로교회(엄영민 목사)	(714)891-2029	
6/25-27	동부사랑의교회(박승규 목사)	(909)590-3722	
6/25-28	세리로스동양선교교회(양성용 목사)	ekim21@hotmail.com (562)402-2919	
	토크스주은교회(김바울 목사)	(310)370-5500	
6/25-29	세리로스장로교회(박규성 목사)	(562)677-7777, 860-5451	
6/26-28	미주서부장로교회(김선익 목사) 생수의강선교교회(안동주 목사)	(310)328-7020 (562)305-3662 (909)287-5656	
	얼마인온누리교회(권혁빈 목사)	(818)312-2173 (949)441-1004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714)287-0101	
6/30-7/3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909)622-2324	
7/8-11	베델한인교회(김한오 목사)	(949)854-4010	1-6학년 영어부-유치부
7/10-11	남가주선교교회(김현인 목사)	(213)481-2779	
7/24-26	나성남로교회(한성윤 목사)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	(310)327-8778 (310)530-4040	



KAPC 개혁장로회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식에서 학위수여자들과 학교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OC교협주최 제4회 사모님 블레싱 나잇 행사에서 참가한 모든이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기뻐하고 있다

###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라”

#### 개혁장로교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 직영 개혁장로교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황은영 목사) 2014년도 학위수여식이 5월 31일 오후2시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에서 열렸다.

이사장 양수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황은영 총장이 환영사를, 권영국 목사가 대표기도를, 김오섭 목사가 성경봉독, 대흥교회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정관일 박사(총회장)가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권면”(딤후 4:7-8, 딤후2:19-2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총회장은 “세상의 졸업식은 개인의 영달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며, 세상 그 어떠한 것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목회를 하다보면 자

칫 잘못하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목회로 될 수 있다. 이는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능력 없는 자가 되고 만다. 따라서 목회자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느끼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안병권 교무처장이 학사보고 했으며 황은영 총장이 학위수여 및 훈시를 했다. 훈시에 이어 동문회장 전태준 목사가 졸업생을 위한 기도를, 이사 이정현 목사가 격려사를, 이사 오세훈 목사가 축사했으며, 대흥교회 헌시바 중창단이 축가를 불렀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이덕만 목사(KAPC 5대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학위수여자 명단이다. 임정식, 정현숙, 방흥열, 배용환, 신재환, 이경미.

(박준호 기자)

### “더 힘내 교회사역에 최선을”

#### OC교협주최 사모블레싱 나잇 성황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주최한 제4회 사모님 블레싱나잇이 5월 27일 오후 6시 홀리데이인 부에나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민경엽 목사는 “사모님들은 이민 교회 소외그룹이다. 이런 자리에서 위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사모 블레싱나잇 행사를 통해 사모님들이 더 힘내서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목사님과 교회를 도와 사역하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이먼리 집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행사는 1부 예배, 2부 식사 및 공연, 3부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됐다.

부회장 김기동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부회장 윤덕근 목사의 기도후 목사부부합창단이 찬양했으며 민경엽 목사가 “선한 일을

2014년 남가주지역 여름성경학교(VBS)가 11일 글로발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0일 남가주선교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7월 24일 나성남포교회(담임 한성윤 목사)와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까지 실시된다. 다음은 본지에 알려진 2014년도 VBS 일정이다.

#### 남가주서머나교회 제2대 담임목사 취임

남가주서머나교회가 8일(주) 오후 3시30분 제2대 담임 김복진 목사 취임예배를 갖는다. 김복진 목사는 칼빈성서신학대학대학원 2대 학장, 남가주개혁장로교회와 아시아복음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문의: (323)278-9972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효 글짓기 및 그림 공모전 시상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주최하는 제2회 미주청소년 효 글짓기 및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오는 7월 오전 10시 홀리톤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670-8004

####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대표 김영길 목사)가 청소년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를 15일(주) 오후 6시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714)904-6298

#### 주님의영광교회 특별부흥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5사5회 특별부흥회를 갖는다. △6월 9일(월)-11일(수) 장학봉 목사 △13일(금)-15일(주일) 유관재 목사 △16일(월)-18일(수) 노완우 목사 △20일(금)-22일(주) 이찬용 목사 △27일(금)-29일(주) 이태희 목사가 각각 단에 선다.

▲문의: (213)749-4500

#### LA동부교협 이필찬 교수초청 집회 및 세미나

LA 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전병주 목사)는 이필찬 교수를 초청해 “오한게시록 바로 이해하기” 연합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합집회는 13일(금)-14일(토) 오후 7시30분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목회자 세미나는 17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626)965-3443/(626)810-3455

#### ‘목회자사모 힐링캠프’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7월 13일(주)-15일(화) 목회자사모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강사는 CMF 가정선교원 황승원 원장.

▲문의: (714)876-8812

#### KPCA서중노회 남성찬양제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 남성찬양제가 6월 8일(주) 오후 5시 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446-9010

#### 말씀블레싱 성경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장수 목사)는 말씀블레싱 성경세미나를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이예실 사모(“어 성경이 읽어지네”의 저자, 샘터성경사역원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성경세미나 시간은 오후7시부터 10시까지.

▲문의: (714)869-5813 이성재 목사

(9면에서 계속)

그러나 MOU체결 후 같은 해 7월 신전지 반대집회를 집회현장인 구수정교회 앞에서 개최한 외에 별다른 가지적 행동이 없어, 12개 단체들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있는지 우려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열리게 될 신전지 이단회와 구원파 박옥수 등 성행하는 이단집회들에 대해 이들 단체들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박준호 기자)

### GMW 주최 제1회 열린음악교육원 음악회

GMW엔터테인먼트(대표 김승기 집사) 주최 제1회 열린음악회가 베데스다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베데스다대학교 산하 열린음악교육원(대표 김승기)에서 지난 3월 15일부터 실시한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장 조에

스터 교수는 “베데스다대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마련한 열린음악교육원 사역과 오늘 음악회를 보면서 감사와 보람을 느꼈다. 교수들과 음악교육원 임원들이 합심해서 배우의 장을 열었고 학생들 역시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이 사역이 실시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승기 대표는 “첫 번째 음악회라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한팀 한팀 연주하는 모습이 은혜로웠다. 전혀 연주를 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삼개월동안 배우며 연습하셨다. 이분들의 연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모습에 은혜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클라리넷, 플룻, 오트하프, 바이올린, 기타, 색서폰, 드럼, 보컬 등 배우에 입한 학생들의 연주회로 열렸으며 ‘You Raise me

up’을 이날 참가한 제시안, 사론 한, 아이비 최, 셸리 김, 크리스틴 리, 페기 강, 박혜란, 문덕연 등이 나서 합창했다. 또한 교수들의 연주순서도 마련됐다.

한편 베데스다대학교 열린음악교육원은 제2기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다. (714)683-121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제1회 열린음악교육원 음악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

##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 일 시 : 6월 15일(주일) 오후 6시 이사장 김영대 목사 대표 김영길 목사

▶ 장 소 : 월셔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

▶ 주 최 : KXVCP 남가주 한인 청소년 비전 센터

▶ 문 의 : (714)904-6298, kyvlove@yahoo.com

감사한인교회,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 월셔연합감리교회, Morningstar Concert Choir, Peniel Women's Choir, Seoul University Chorale, Soong Eui Choir, Soong Sil OB Men's Choir, Yonsei University Choir, Kairos Mission Worship Dance





#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 (4)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 III. 아시아 복음화에 도움이 되는 3가지 현대 발전상황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인류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물론 우리는 바울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 없었던 3가지 현대 발전상황이 아시아 복음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1. 아시아교회의 놀라운 교회성장

아시아-1과 아시아-2에 속한 국가들 중에 놀라운 교회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많다. 저자가 아시아신학협회 (ATA)의 첫 총무 (1970-1990)로 1970년 싱가포르에서 사역했을 때 아시아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성장의 유아상태에 처해 있었다. 일본과 태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세력

아시아 신학교육 부분에도 더 성숙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는 유럽과 북미 신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 내에서 충분히 영성과 학적수준을 갖춘 신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저자가 ATA의 첫 총무로 20년간 사역하면서 ATA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 후의 총무들(Ken Gnanakan, Derek Tan, Joseph Shao박사)은 ATA를 오늘의 성숙한 위치로 올리게 되었다.

ATA는 현재 신학교인가와 연결하여 아시아의 275신학교가 멤버로 되어있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학교인가단체가 되었다. ATA는 또한 1984년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GST)를 창설하여 4개 학위 (Ph.D., Ed.D., D.Min., Th.M.)를 수여하여 신학교 교수를 양육하게 되었다. AGST-필리핀, AGST-일본, AGST-동남아시아, 인도네

되었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시아 신학교육에 혼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일본의 Kazuo Kitamori 박사의 “신의 고통의 신학,” 태국의 일본선교사인 Kozuke Koyama 박사의 “불소신학,” 대만 송전선 박사의 “제3는 신학,” 한국의 김용복 박사의 “민중신학,” 인도의 Stanley Samartha 박사의 “제한이 없는 그리스도신학” 등이 아시아 신학도론의 주제가 되었다.

오늘의 중요과제는 “지구촌”(Globalization)이다. 세계의 국제무역, 여행, 커뮤니케이션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지구촌 작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지구촌의 영향이 문화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아시아인이 기독교를 서양종교로 인식했고 아시아 문화의 현대화에 많은 공헌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아시아의 젊은 청년들

## 아시아 교회 초고속 성장...서구신학교육 의존 탈피 지구촌화, 인터넷 첨단기술로 전 세계 한가족 개념

과 일본의 식민지 경험으로 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도 대다수의 아시아 나라들은 서양국가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서양 선교사의 활동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그들은 선교지원금으로 많은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아시아의 교회지도자들은 서양 선교단체와 “부자간의 관계”를 맺고 재정원조를 받고 있었다.

오늘의 아시아-1, 아시아-2 국가에 있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선교금과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아시아교회도 이제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2, 아시아-3, 아시아-4에 속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외국 선교사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선교사는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얻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40년간의 급속도의 교회성장은 중국,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일어났는데 세계 교회를 놀라게 하였다. 한국교회의 1970년대의 교회성장은 “하루에 6개 교회가 설립”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지난 20년간 중국의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의 놀라운 교회성장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세계교회에 널리 알려져 왔다.

시아는 2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각 나라의 AGST프로그램은 ATA의 인가를 받고 있으며 AGST학위는 아시아와 세계 6대륙의 신학협회로 구성된 국제복음주의신학교육협회 (International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에서 인정해주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에도 2013년 AGST-한국이 창설되었고 ATA의 인가를 받은 11개 한국신학교가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 AGST-중국, AGST-인도, AGST-중동 지역도 창설될 가능성이 있다.

### 2. 아시아의 “상황화”로부터 세계의 “지구촌화”로 강조

영국 런던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신학분과위원회 (Theological Education Fund)가 “Third Mandate Period”(1970-1977)를 소개하면서 제3세계 신학교육의 “상황화”를 강조하여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상실케 하였다. TEF는 3백30만 달러를 사용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신학교 양성을 위해 원조했고 제3세계의 문화와 정통종교와 연결시켜 인본주의 상황신학과 종교다원주의신학을 선전하였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신학교에 다종의 “아시아 상황신학”(Asian Theology)이 소개

은 지구촌의 영향을 받아 타종교에 관해 마음 문을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가 아시아-2, 아시아-3, 아시아-4 국가의 청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으며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3. 현대 매스미디어의 발전

현대 매스미디어 발전은 인터넷, 라디오, TV, 스마트폰, 출판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왔고 매년 새로운 기기가 발명되어 세계를 작은 지구촌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 집 안방에서 세계 어느 구석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멀리 있는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얼굴을 맞대고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사용하여 아시아-2, 아시아-3, 아시아-4 국가(제한된 국가)의 교회지도자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심한 기독교 핍박 국가에 있는 교회는 보이는 지교회 건물 안에서보다 소그룹 모임을 중심으로 다종의 매스미디어 자료를 사용하여 연장선학(TEE)과 온라인 (On-Line)을 사용하여 신학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



## 방지일 칼럼 (42) “본대로 들은 대로”

### 영리한 전구

아이들이 총명하게 보인다. 그 눈동자만 보아도 영리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어른들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녀석 영리하다는 치하를 한다. 울산집회 때 어느 숙소에 묵었는데 밤에 숙소 계단에 들어서면 계단에 불이 들어온다. 내가 나가면 불이 저절로 꺼진다. 신동하게 생각됐다. 듣는 대로 센스가 빠른 전구가 있어 물체가 움직일 때 전기가 들어온다는 말이다. 독일에 갔더니 새벽 기도회에 가는데 캄캄한 때이다. 내 발자국을 듣는 것 같다. 가까이 가면 촛마 끝에 불이 훤히 밝혀진다. 그곳을 지나면 불은 꺼진다. 도난방지에도 유익하다. 밤에 자면서 밝은 것은 잠자는데 좋지 않아 불을 끄고 자는 것이 통례다. 불을 끄면 작은 전구에 글을 볼 전도의 빛은 아니나 화장실에 갈 역한 빛이 켜지는 전구가 있다. 거의 밤마다 그런 전구가 있다 그보다 강한 빛이 오면 그 불은 꺼진다. 나는 이 전구를 영리한 전구라 불러보았다.

나는 내 집에선 작은 손전등을 옆에 놓았다. 밤에 일어날 때는 그 손전등을 비추어 불도 켜곤 했다. 이 영리한 전구를 전에도 사다가 몇몇 분에게 드린 일도 있으나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영리한 전구! 이렇게 입안으로 중얼거리 보면서 이 글을 쓴다. 이러한 영리한 전구를 사용하여 필요할 때 불이 자동적으로 켜지고 필요 없을 때 불이 자동적으로 꺼진다. 전력 절약에도 얼마나 필요하지 모르겠다.

목회자들이 이 영리한 전구 같이 되어야겠다고 느낀다. 어두운 일을 하는 이들이 나를 보면 환하게 그를 비추어 그 하는 일을 그가 그치게 되어야 하겠다는 심정이다. 실로 어두운데 자신이 하는 일을 영안이 어두워 영안이 영리하지 못한 지라 보지를 못한다. 보이지도 않는다. 목사를 대할 때 빛이 그에게 비추어 밝혀주면 자신을 보게 된다. 그에게 나는 예리한 친구가 되어짐이다. 얼굴에서 대하에서 후 같이 기도할 때 상대방이 당황해 함을 많이 보기도 한다. 어떤 때는 자기의 잘못을 직고하는 일도 당해보았다.

“목사님을 만나니 어딘가 불안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직고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일을 나는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말한다. 어두운 그에게 빛이 비추니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일을 회고하면서 목회자는 언제든지 이 빛을 비칠 수 있어 바른 목회자 된다고 본다. 근자에 각양각색의 목회방안 그 연구들이 지상으로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많은 시간의 할애라 할지 시간 낭비라 할지 소모된다. 모름지기 골방에 들어가서 영리한 전구가 되어져 나오면 된다. 누구를 대하든 그 상담에서든지 어떤 접촉에서도 상대방이 어두워졌을 때 이 영리한 전구는 어두운데서 빛을 발하게 됨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영리한 전구라 할 것이다. 말씀을 읽는다. 외운 말씀을 묵상한다. 나는 늘 외우는 성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외운다. 어떤 때 그 영리한 전구 빛에 내 생각의 어두운 곳을 밝혀 함을 때로 느낀다. 영리한 말씀의 빛이다.

기도도 영리한 빛을 비추어주고 있다. 기도할 때 그 센스 높은 전구에 불이 훤히 켜지듯 기도의 깊이에 비례해서 그 빛의 축수가 높아진다. 밝히 그 앞에 나타나이다. 기도의 불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없다. 누구나 체험하는 일이다.

성경과 기도에서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한 센스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다. 영리해진다로도 표현 못한다. 너무나 예리해진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겠다. 신앙은 예리한 감촉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를, 드림에 있다 하겠다. 최근 지나친 신앙인의 활동, 교회의 역사가 광범위해진다. 마치 대 기업체를 능가할 사업을 구상한다. 개인적으로 신앙무대를 넓히려는데 많은 비중을 두는 수 껌이다. 영리한 빛을 받는데 발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는 골방의 출입에 정비해한다. 골방에 드나드는 그는 자신이 그 영리한 빛에 감응이 예민해진다. 어두운 분에게 또한 예민하게 비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 서로 사랑함이다. 주님의 본을 받아 서로 발을 씻음이라 하겠다.

(1999년, 3권)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 (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8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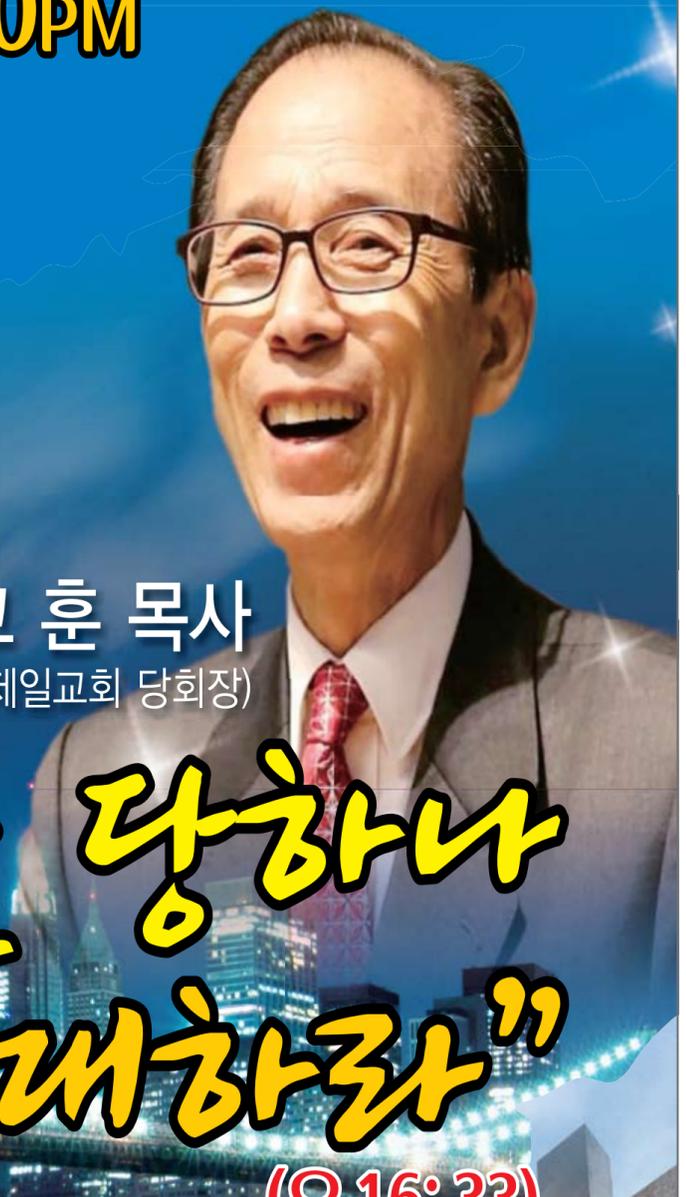
# 할렐루야 2014

# 대뉴욕 복음화 대회

##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일시** 6월 13일(금) - 14일(토) 7:30PM  
6월 15일(주일) 5:30PM

**장소**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  
PROMISE CHURCH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강사: 고 훈 목사  
(안산제일교회 당회장)

#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 16:33)

주제

### 버스안내

**출발시간**  
6월 13일(금), 14일(토): 오후 5시 30분부터 20분간격  
6월 15일(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20분간격

**출발장소**  
1. 후러싱 공용주차장 삼수갑삼 앞  
2. 74가 잭슨하잇 종합식품 앞  
3. 베이사이드 BBCN 은행 앞

### 어린이 복음화대회 (CHILDREN)

**일시** 6월 13일(금) - 6월 15일(주일)

**장소**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



**강사** Pastor Alan Wu  
Children Ministry Pastor  
Promise Ministries



**강사** Pastor HyeJin Shim  
Children Ministry Pastor  
Promise Ministries

### 목회자 세미나



**일시** 6월 16일(월) 9:00AM

**장소** 금강산 Kum Gang San

**강사** 고 훈 목사 (안산제일교회 당회장)

### 청소년 복음화대회 (YOUTH)

**일시** 9월 5일(금) - 9월 6일(토)

**장소** 뉴욕장로교회 (이승한 목사)



## 주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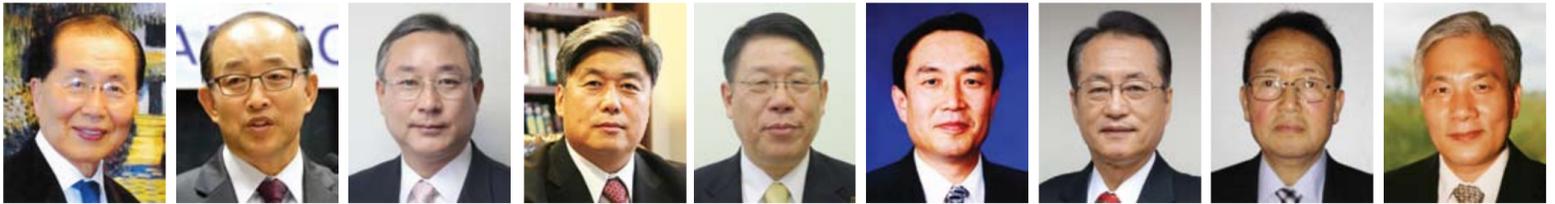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대회장: 김승희목사 | 부대회장: 이재덕목사, 이주익장로 | 준비위원장: 이풍삼목사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 T. 718-358-0074, 4428 / F. 718-321-0105 | E-mail: nyckcg@gmail.com / www.nyckcg.org

# 세월호 참사에 대한

##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KAPC) 선언문



총회장 정관일 목사 부총회장 김영수 목사 서기 최동진 목사 부서기 한세영 목사 회록서기 김성득 목사 부회록서기 양수철 목사 회계 김용생 장로 부회계 민제기 장로 총무 공재남 목사

북미주를 비롯한 중남미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복음화를 위해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본 KAPC교단 산하 600여교회, 30개 노회 총대원 일동은 조국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석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참회와 위로, 각오와 청원의 마음을 선언한다.

첫째,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빚어진 참상으로 알아(눅13:4),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통회 자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한다.

둘째, 세월호 참사를 당해 슬픔과 고통 속에 잠겨있는 모든 유가족들과 조국 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 속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한다.

셋째, 세월호 참사를 통해 깨닫게 하신 바, 지금까지의 세속적 성장주의 목회철학을 회개하며, 건전한 신학과 성숙한 교회 부흥운동을 통해 조국과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살려내고 죄 아래 타락해 가는 현대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의 공정하고도 투명한 수사를 요청하며, 이를 계기로 정경종(政經宗) 비리 유착의 연결고리를 단절하며 무사 안일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모든 백성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지역 갈등이 없고, 어느 백성도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행복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선언한다.

주후 2014년 5월 23일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제 38회 총회

총회장 정관일 목사 외 30 개 노회 총대원 일동